

2016년 12월 16일,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마을회관 앞, 김선희 조사.

제보자1: 이순옥(여, 1931년생, 서귀포시 중문동)

제보자2: 김순자(여, 1935년생, 서귀포시 중문동)

[조사자] 옛날 들어난 말들 잇수과?

[제보자2] 옛날 밤이 드르밧디나 가민 도체비나 나민 사금바치나 돌이나 뽕앙으네 싹 허 게 뿌리면은 도체비가 삭아져 불주기.

[제보자1] 불란지 불 모양으로 밤에 불 필롱필롱 나는 도체비는 무섭지 안 헌댄 헛주게.

[조사자] 그믐 뭐가 무서웁니까?

[제보자1] 낮도체비.

[조사자] 낮도체비도 잇수과?

[제보자1] 으게. 낮이엔 헌 건 우리 고사리 꺾으레도 가면 바로 헤나민 낮이지. 사름으로 벤장허여. 도체비가. 헛게로게. 바로 사름으로 홀랑.

그디 고사리 꺾으레 간 사람? 추록 헤영 훈디 오랜 헤영. 경 허민 고사리 꺾으레 간 사람이 그 도체비를 비치면 그 사람 말을 따라 가지게. 어디 아무디라도 거령청헌디. 으게. 경 허영 죽어. 도체비 비청 죽어.

[조사자] 그게 낮도체비.

[제보자1] 낮도체비. 낮도체비가 무섭댄 허는 거. 밤도체비는 필롱필롱 불은 헤어도 홀리지는 아니허는 거.

[제보자2] 옛날에 우리어머니 사발 사례 가명 도체비 나오란 홀리난 바로 내에 내 가운데 가졌댄. 나중에 베런 보난 내 가운데 사젓이난 확 넷돌 부수왕 돌로 닥닥 벌렁 앓앙 뿌리난 그 살아져랜.

[제보자1] 우리 어명도 경 헤낫인게예. 고사리 꺾으레 가난 누게가 그자 앞이 상 여기 고사리 잇젠 오랜 허난 그 어른 조름에만 팍팍 가난에. 밤이 고사리 꺾으레 강 오랏어. 오지 안 허난. 우리 중문이난에. 친정이 중문이난 회수 성제가 사난 회수레 몬 전화하난 느려오란. 좇으레 밤이 올라강 헤 봐도 어디랑 강 좇지 못헿 허당 보난. 뒷날 아침은 동네 사름들이영 좇으레 강 보난 저 골른오름이믄 안덕면 지경 저 우이. 그디까지 할망이 간. 비지근히 불앙. 할망이 밤새낭 걸언. 그디까지 가노렌 허난 비지근히 불아가난에 할망이 정신이 낮인고라. 거령청이 질 몰라 헤어전. 경 헤신디 정신 출령 할망이 오랏언게. 경 행 죽지 안 행 좇아오라 낮어.

- 핵심어 : 도체비, 사금바치, 불란지 불, 낮도체비, 벤장, 헛게, 사름 홀리기, 넷돌